

성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김현수 (독립개신교회신학교 교수)

어떤 이들은 성신 하나님¹에 대하여서는 오순절 교회에서 잘 경험할 수 있고, 복음 전파에 대하여서는 복음주의적인 교회에서,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이나 신학적인 지식들은 개혁교회에서 잘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다양한 입장들을 한데 엮으면 금상첨화라고 여기고는 이를 ‘꽃다발 신학’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하지만 오순절 교회도 “성신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의 ‘신학’이 있다. 복음주의적 교회도 역시 그 교회의 신학이 있고 그 신학에 근거하여 복음 전파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모든 교회는 나름의 신학이 있어서 그 신학에 근거하여 행하는 것이지, 어느 한 교회에서 신학을 가져오고 다른 교회에서는 다른 것을 가져온다는 것은 상당히 순진한 접근이 될 것이다.

또한 어떤 교회의 성신론이 ‘약하다’ 혹은 ‘강하다’ 하는 말들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외적인 종교 현상들을 두고서 하는 말이다. 그렇지만 ‘오직 성경’의 전통에서 있는 우리는

1. 필자가 ‘성령’이라는 말보다는 ‘성신’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성신의 인격성을 더 잘 나타내기 위함이다. 한국말로 영(靈)이라고 하면 사람의 영이 생각나고, 이것을 종교적인 수련을 통해서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신(神)이라고 하면 우리와 다른 분임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성신이라는 말을 쓴다. 성신을 성령으로 읽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성경에서 성신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치고 우리의 신앙고백서나 요리문답에서 어떻게 고백하는지에 주의를 기울이려고 한다. 성경의 교훈으로 종교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오늘 살펴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문은 사도신경에서 “나는 성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구절에 대한 해설로서, 성신의 위격과 사역에 대하여 가르친다. 즉, 성신께서 제3위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또한 그분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덕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을 가르친다.

53문: 성신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첫째, 성신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하십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면 비록 ‘성신에 대한 고백’은

53문제만 나오지만 ‘성신에 대한 언급’은 요리문답 전체에 고루 퍼져 있다. 52주일의 분량 가운데 24개 주일에서, 전체 129문답 가운데 31문답에서 성신에 대한 언급을 찾아 볼 수 있으며, 그 부분들은 요리문답의 중요한 구조적 전환점이거나 핵심적인 내용을 고백하는 대목들이다.² 이 글에서는 53문답에 국한하여 성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살펴보려고 한다.

1. 성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신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지만, 고대 교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신을 그저 영향력이나 세력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교회 안에 늘 있어 왔다. ‘성신을 부어 주셨다’, ‘성신을 내리셨다’ 하는 성경의 표현들을 오해함으로 인해 그러한 경향이 더욱 심해지기도 하였다(행 2:33; 10:38, 44, 45). 그러나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가 성신의 위격과 사역을 더 쉽고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주어진 것들이다. 성신의 사역을 생수나 바람, 혹은 불로 표현하기도 한다. 오순절에 임한 성신 하나님은 신자의 안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으로 표현하였다(요 7:37-39). 또한 그분은 ‘바람’으로 비유되었다(요 3:8. 참조. 요 20:22). 아무도 바람을 제어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일을 주권적으로 표현하려고 성신을 바람으로 비유하였다. 또한 그분은 ‘불’로 묘사되어 심판을 시행하시는 분

2. 즐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성신론과 신자의 삶 - 신령하고 자유스럽고 자연스러운 삶”, 『성약출판소식』 78, 79호 (2010, 2011년).

F. Klooster의 분류를 따르면, 53문의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언급하는 문답은 21, 23, 24, 25문이고, “나에게도 주어져서”와 관련된 문답은 21, 65문이며, “그리스도와 그의 은덕에 참여”하게 하심을 언급하는 구절은 49, 51, (55), 74, 76문이고, “나를 위로하고”와 관련된 문답은 1, 2, 52, 53, 57, 58문이며, “영원히 나와 함께하십니다”와 관련된 문답은 70, 72, 73, 74, 76문이다. F. Klooster, Our Only Comfort (Faith Alive, 2001), 674.

으로 가르쳤다(마 3:11). 따라서 이러한 표현을 허투루 이해하여 성신을 영향력 정도로 생각하거나 사람의 종교적 행위로 그분을 조정하려 하는 태도는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요리문답은 성신께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 즉 성신은 성부와 성자 ‘처럼’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표현은 성신의 존재와 사역이 성부와 성자의 존재 및 사역과 더불어 생각하여야 할 주제임을 함축한다. 성신은 성자께서 성부께로부터 받아 우리에게 주신 분(요 15:26; 행 2:33), 달리 말하면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 분”이시다. 따라서 성신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일하신다. 예수께서 항상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성부 하나님만을 나타내신 것처럼(요 8:29), 성신께서도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고 오직 보내신 분인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나타내신다(요 16:14). 그래서 성신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불린다(롬 8:9).

성신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어떤 학자는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요약하였다.

성신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상을 갖는 것이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는 것이다.³

2. 성신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우리의 요리문답에서는 “성신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하고 고백한다. 성신은 내가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신 분이다. 성신은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수단을 써서 얻을 수 있는 분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때에만 받을 수 있다

3. Andre Pery, Heidelberg Catechism with Commentary (Pilgrim Press, 1963), 96.



오순절에 성신께서 불과 같은 모양으로 임한 것을 그린 서방 전통 (12세기, 알사스의 Hohenburg 수도원)

(고후 1:21-22). 우리는 성신을 선물로 받을 뿐 아니라, 성신께서 주시는 은사도 그분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대로 받는다(고전 12:11).

성신을 나의 노력이나 수단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신께서 하나님임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태초에 수면 위를 덮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성신을 과연 어떤 피조물이 ‘조작’할 수 있겠는가(참조. 시 104:30)?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종교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성신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다고 믿기도 한다. 그러한 “은사 운동들”은 성신께서 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라는 사실을 간과한 채 성신을 ‘갖기 위한 방법’을 전수하는 데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요리문답은 성신이 ‘나에게’ 주어지셨다고 고백하지 않고 “……또한 나에게도” 주어지셨다고 고백한다. “또한 나에게도”라고 말하는 것은 이 고백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성신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주어지셨으며, 이 교회 안에는 개인인 나도 포함된다. 신약의 교회는 성신께서 강림하신 오순절 날에 세워졌다. 그때에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이 ‘다’ 성신의 충만함을 받았다(행 2:4). 오순절 이후로 성신께서는 계속 교회 안에 계시면서 말씀을 가르

치신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성신을 통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한 성신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신을 마시게”(고전 12:13) 되었다. 우리는 성신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고(고전 3:16), ‘한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된 자들이며(엡 2:18), 또한 “성신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다(엡 2:22).

3. 성신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첫째,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신다.

53문에서 성신의 사역으로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성신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의 은덕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이란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같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한 은덕이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덕에 참여한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한다’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러한 구원의 은덕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신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구원의 은덕을 누리

게 하신다. 칼빈의 표현처럼, “성신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에게로 효과적으로 연합시키시는 끈이시다.”⁴ 성신을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 성신께서, 우리를 성자를 통하여 성부께로 이끄시는 것이다.

둘째, 나를 위로하신다.

성신은 ‘다른 보혜사’이신데(요 14:16, 17; 15:26) 보혜사라는 말은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라는 뜻이며, 법정에서 변호하는 역할을 가리키기도 하고, ‘위로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 위로자로서 성신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도록 깨우쳐 주시는 것과 연결된다. 1문의 표현대로 성신께서는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는데, 이것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이다.

셋째,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하신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내신 보혜사 성신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는 법이 없다(요 14:16-18). 성신을 보내실 일을 말씀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18절) 하셨다.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성신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신다. 성신으로 우리와 함께하심으로써,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신다(마 28:20).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성신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처럼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다(롬 8:11). 그분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을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영광의 영’이시다(벧전 3:13, 14).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기업을 얻을 것을 보장하시고 인 쳐 주시는 분이 곧 우리 안에 계신 성신이다(엡 1:13, 14). 비록 아직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



오순절에 성신께서 임한 것을 그린 동방 전통

지만, 부활의 성신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이 장차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에 대한 보증이다.

4. 성신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첫째, 말씀으로

성경의 원 저자이신 성신께서는 성경을 읽고 배우는 사람들이 그 말씀의 뜻을 깨닫도록 하신다. 우리가 중생의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벧전 1:23).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져야 하는 것이다(롬 10:17). 성신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일에 말씀을 사용하신다. 성신께서는 성경 기자를 감동하여 성경을 쓰게 하신 분이시므로 말씀에 갇혀 계시지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말씀을 은혜의 방도로 사용하기를 기뻐하셨다. 마치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육신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심에도 우리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성신께서는 말씀에 갇혀 계시지 않지만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성신을 알 수 없다.

4. 『기독교강요』, 3권 1장 1절.

둘째, 믿음으로

성신께서는 복음의 강설을 통하여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믿을 것을 요구하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의미한다.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으로 믿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신자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 바로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삶이다. 성신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분의 은덕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갈 2:20),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신 성신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신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자기의 전적인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겸손한 태도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신을 주신다(눅 11:13). 주님의 은혜와 성신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성신을 내려 주신다(116문). 성신은 우리를 유기적으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빈 자루처럼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채워 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다. 유기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동일한 성신께서 활동하시지만 효과는 다르다. 예를 들자면, 파이프 오르간에 똑같은 공기를 들여보내더라도 어느 파이프와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진다. 동일한 성신이지만 사람에게 따라서 나타나는 양상은 매우 다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분명한 원칙인 말씀에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다른 데서 자신의 길에 대한 주님의 뜻을 찾았다면 그것은 주님을 시험하고 근심케 하는 일이다. 또한 이미 ‘말씀’이라는,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주님의 뜻을 알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외에 다른 어떤 신비한 경험을 찾았다면, 그것도 주님께서 내신 방식을 무시하는 그릇된 태도이다. 성신은 내가 종교적인 기술이나 비법으로 소유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므로 성신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마련이다.

5. 결론

성신에 대하여서 오늘날 사람들이 워낙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에 대한 반발로 아예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물론 말씀과 무관하거나 그리스도와 무관한 성신론은 경계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나 그 후의 삶에서 성신의 역할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성신에 대한 바른 이해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며(요 3:5),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롬 8:9). 육신을 좇으면 사망에 이르지 않지만 성신을 좇으면 생명에 이르기 때문에(롬 8:5-7), 신자는 성신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신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하며(엡 4:30) 소멸하지도 말고(살전 5:19) 오직 성신을 좇아서 행해야 할 것이다(갈 5:16). 나무가 열매를 억지로 맺을 수 없듯이, 성신의 열매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었을 때에 아홉 가지 측면을 가진 성신의 열매(갈 5:22-23)를 풍성히 맺을 수 있다.



글 | 김현수

총신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였고 기독교학문연구회 간사와 총무를 역임하였다. 이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네덜란드 아펠도른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대전성교회에서 목회하였다(1997-2010). 2010년 이후에는 독립개신교회 신학교에서 교의학과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권, 『시편과 그리스도의 고난』, 『시편과 그리스도의 영광』 등이 있고, 역서로는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세계관과 현대사상』 등이 있다.